

李應禧가 시로 쓴 백과사전 〈萬物篇〉에 대하여

李鍾默(서울대)

1. 서론
2. 이응희의 삶과 시세계
 - 1) 가계와 생애
 - 2) 저술과 시세계
3. 만물을 노래한 연작형 영물시 <萬物篇>과 <詠鳥>
 - 1) 백과사전으로서의 <만물편>
 - 2) <만물편>의 구성과 내용
 - 3) 새에 대한 연작시 <詠鳥>
4. 연작형 영물시의 전통과 <萬物篇>의 의의

1. 서론

17세기 무렵 서양사에서는 이른바 계몽주의의 시대가 열린다. 이성에 바탕한 지식의 욕구가 백과사전을 탄생시켰다. 조선에서도 이 시기 주목할 만한 서적들이 편찬된다.

이수광이 1624년 탈고한 『芝峯類說』이 바로 조선에서 백과사전식 저술의 출발을 알린 책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지봉유설』은 人事와 萬物을 25개의 부류로 나누고 각 부류 아래 다시 하위 종을 세분한 다음, 당시 지식인이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두루 수록하였다. 『지봉유설』과 같은 저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다양한 類書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¹⁾ 조선 지식층 내부에서 이와 같은 백과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저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지봉유설』에 수록된 정보는 중국 문헌을 바탕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특히 「服用部」·「食物部」·「卉木部」·「禽蟲部」 등의 부류 아래에는 服食과 器物, 飮食, 동식물을 세부항목으로 두고 중국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조선의 사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 權文海에 의하여 편찬된 『大東韻府群玉』은 類書가 아닌 韻書이기는 하지만 조선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한시를 제작하기 위한 전고 사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책이다. 여기에도 역사 사건뿐만 아니라 조선의 복식과 기물, 음식, 동식물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17세기 무렵 이와 같은 백과사전적 기능을 하는 저술이 편찬되는 한편, <屠門大嚼>과 같은 음식 전문 저술도 나타났다. 중국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데 누구보다 빨랐던 許筠이 1611년 저술한 <도문대작>은 그 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평소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을 두루 나열한 것이다. 떡[餅餌之類]·과일[果實之類]·날짐승[飛走之類]·바다동물[海水族之類]·채소[蔬菜之類]·其他로 나누어 그 안에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특정한 성격의 사물을 유형별로 모으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우리나라의 저술로는 가장 이른 것 중 하나로 작은 음식사전이라 할 만하다.

1) 『지봉유설』의 백과사전적 성격은 안대회,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 후기 명물고증학의 전통」(『진단학보』98호, 2004)에 가장 자세히 세다.

이러한 사전류 저술이 막 나타나는 시기, 세상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李應禧라는 사람이 있어 <萬物篇>이라는 시로 지은 독특한 사전을 하나 만들었다. <만물편>은 세상 만물을 25종의 유형으로 나누고 다시 그 아래 280개의 사물을 나열한 다음, 각각의 사물에 대해 오언율시를 지은 것이다. 시로 지은 백과사전 <만물편>은 우리 문화사에서 전무후무한 독특한 것이다. 우연한 기회 이용희의 문집을 열람하다가 <만물편>이라는 거작을 발견하였기에 이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2. 이용희의 삶과 시세계

1) 가계와 생애

李應禧(1579~1651)는 자가 子綏, 호가 玉潭이며, 본관은 全州로, 安陽君의 高孫이다. 성종대왕의 삼남 안양군은 貴人 鄭氏 소생으로 연산군과는 이복형제간이다. 이복형인 연산군이 즉위한 후 생모 尹氏가 폐출되어 죽게 된 것이 귀인 정씨와 嚴氏가 참소한 탓이라 여겨 두 귀인을 장살하였다. 그보다 앞서 안양군은 鳳安君, 檜山君 두 아우와 함께 연산군의 학정을 비판하는 직언을 올렸지만 연산군이 귀를 기울일 리가 없었다. 결국 안양군은 1504년(연산군 10) 충청도 제천에 유배되었다가 제주 謫所에서 죽었다. 부인 綾川君 具壽永의 딸은 甄城君의 노비로 넘어갔으며, 그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다.

다행히 中宗이 반정으로 즉위한 후, 안양군은 작위가 회복되고 恭懷라는 諡號가 내려졌다. 그리고 국가의 예법에 따라 그 아들 李億壽가 從南都正에 봉해졌고, 손자 李貴義는 德豐副正에 봉해졌으며, 증손 李玟은 驪興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왕실의 후손에게 세습되던 이러한 宗親府의 벼슬도 관례에 의하여 여흥령 이현의 대에서 끝이 났다.

이용희는 여흥령 이현과 平山申氏 季衡의 딸 사이에 태어났다. 종실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기에 평범한 향촌의 사족으로 살았다. 경기도 산본, 당시는 과천에 속한 山內谷, 수리산 아래 선대부터 살던 집에서 책을 읽고 시를 짓는 일로 즐거움을 삼았다. 젊은 시절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그 뜻이 절실하지 않았던 듯하다. 고손 李思永의 <先考府君墓誌>에는 이용희가 광해군 때 大科 初試에 합격하였지만 광해군의 실정을 보고 벼슬에 뜻을 접었다고 하였는데, 과거에 실패한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은 듯하다. 다음은 1622년 무렵 스스로의 삶에 대해 적은 작품이다.

내 인생 천지간에 일개 무능한 몸
마흔여섯 해 생애에 얻은 것이 없어라.
글을 지어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고
검술을 배운들 어찌 만인을 대적하라?
방안의 노부모께 맛난 음식 못 올리고
산골이라 아내는 반찬 없다 시름하네.
아들 일곱 있어 공부를 하였다 하지만
겨우 글귀나 읽으니 무슨 소용 있으랴?
한가하면 술상을 차려 이웃을 모아서
강개한 노래 크게 부르니 마음이 아득하다.
회곳회곳 백발이 이미 머리에 가득하니

질로 늙어갈 뿐 무엇을 다시 아쉬워하라?
 아아, 타고난 운명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술병 앞에서 오래 시름에 잠기지 말자.
 我生天地一疎慵 四十六年無所得
 爲文未遂捷科第 學文焉能萬人敵²⁾
 堂中親老甘旨闕 壑裏妻愁盤膳缺
 有子七人縱云學 摘句尋章何所益
 閑中置酒聚比隣 慷慨高歌心漠漠
 種種白髮已滿巔 任天從衰何用惜
 吁嗟賦命苟如此 莫向樽前長戚戚

이응희, <내 인생(我生)>(『玉潭遺稿』)

마흔 여섯 해 살아온 인생을 조용히 돌아보았다. 글을 익혔지만 과거에 오르지 못하였고, 무예를 배운다 한들 나라를 위해 크게 쓸 재주는 되기는 어렵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라 부모님께 맛난 음식도 올리지 못하고 반찬거리 없다고 푸념하는 아내에게 부끄럽다. 자식에게 부지런히 글을 가르쳐 자신을 대신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쳐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자신은 그저 이웃의 벼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분수대로 살아갈 뿐이다. 이응희는 이 시에서 다짐한 대로 살아갔다.

인조반정 이후에도 이응희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1625년에는 선영이 있던 山內에 새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무렵부터 스스로의 호를 玉潭이라 한 듯하다. 집 동쪽에 선대에 파놓은 그리 크지 않은 못이 하나 있어 맑은 물이 흘러들었다. 그 곁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옥담이라 하였는데, 이로써 호로 삼게 된 것이다.³⁾

옥담에는 여덟 가지 풍경이 있었다. 바람을 머금은 푸른 물결이라는 뜻의 舍風鵬綠, 조그마한 구리 동전 모양의 파란 연잎이 떠 있다는 뜻의 靑錢小點, 높은 산속의 아름답디리 소나무라는 뜻의 龍門老幹, 겨울에도 푸르른 빛을 자랑하는 바위틈의 소나무라는 뜻의 巖邊晚翠, 햇살이 비치는 연못에 부리가 노란 오리가 노닌다는 뜻의 弄日鵝黃, 해당화가 농염한 향기를 뿜는다는 뜻의 紫綿濃香, 산골짜기에 막 돌아난 대나무라는 뜻의 嶰谷新叢, 해가 뜰 무렵 언덕이 먼저 붉게 타오른다는 岸上先紅이 그것이다. 하나하나가 시와 같이 운치 있는 이름을 붙였다.

이응희는 초가로 된 집에 서재를 꾸미고 茅齋라 이름 하였다. 다음은 1644년 무렵 모재에서의 한적한 삶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의 집에 봄이 반 늙었지만
 물색은 더욱 교태를 부리누나.
 여린 버들가지 바람 담백 안았는데
 대나무 가지 끝에는 이슬이 맺혔네.
 제비는 돌아와 옛 등지를 찾는데
 피꼬리는 울면서 새 집을 지키네.

2) 學文은 學劍의 잘못이다. 이 구절은 項羽가 젊은 시절 글을 배워도 성취하지 못하고 검술을 배워도 성취하지 못하였는데 그의 숙부 項梁이 꾸짖자, 항우는 “글은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되고 검은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니 배울 것이 못 됩니다. 萬人을 대적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한 고사를 따른 것이다.

3) 이상의 생애는 이응희의 誌石文을 참고한 것이다. 이 글은 『全州李氏 安陽君派世譜』에 실려 있다.

시 하는 나그네야, 올 것 없다네,
 한가하게 바둑 두며 혼자 즐기니.
 詩家春半老 物色轉生嬌
 弱柳含風線 叢篁滴露梢
 燕來尋舊壘 鷺轉護新巢
 墨客無相過 閑碁獨自鼓

이응희, <모재의 봄 풍경(茅齋春景)>(『玉潭遺稿』)

이응희는 집을 詩家, 곧 시의 집이라 하였으니 시인으로 자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시에서 스스로를 詩翁, 墨翁이라 일컫기도 하였다. 이응희는 옥담을 사랑하면서 한가하게 시인으로서 평생을 보내었다. 향촌에서 사귄 벗들이나 인근 고을의 관원들과 어울려 시주를 즐겼다. 중년 시절 관서 지역을 여행하였고 호남과 영남 지역으로 나들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잦은 일은 아니었다. 아마도 모친에 대한 지극한 효성 때문에 그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전염병이 돌아 모친을 모시고 다른 곳에 가서 잠시 살던 때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가족을 이끌고 서해의 섬으로 들어가 지낼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거처를 옮기지 않았다.

이응희는 옥담으로 찾아온 벗들이나 인척들과 어울려 시를 짓는 일로 생애를 보내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지은 <병이 오래되어(病久)>에서 “아직도 시 다듬는 병이 남아 있어서, 때때로 좋은 시구 자주 찾노라(尙有攻詩癖, 時時覓句頻)”라 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지은 <가을날 회포를 적다(秋日書懷)>라는 시에서는 “사업은 시가 천 수요, 생애는 집이 몇 칸이라(事業詩千首, 生涯屋數間)”라 한 대로 칠십 평생 지은 시가 천 수에 육박하였다. 노년에는 여러 병이 겹쳐 나들이가 불편하였지만, 잠시 병이 나오면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근처 아름다운 물가로 나아가 시를 짓곤 하였다. 1651년 73세로 세상을 떠나던 그 해까지 이응희는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았다.

2) 저술과 시세계

이응희가 평생에 걸쳐 지은 시는 대략 1,050題 가량 되는데, 그 중 연작이 많으므로 실제 작품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남은 이응희의 시는 『玉潭遺稿』와 『玉潭私集』으로 묶여 전한다.⁴⁾ 『옥담유고』와 『옥담사집』에는 이응희가 제작한 한시의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지만 온전한 문집으로 보기는 어렵다.⁵⁾ 근세에 필사된 것인지만 잘못된 곳이 많은데 다행이 잘못 필사된 곳은 예전의 교정부호에 의하여 표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⁶⁾ 『옥담유고』에는 1623년 무렵까지의 시가 실려 있고, 『옥담사집』에는 그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으니, 서명이 이처럼 달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옥담유고』와 『옥담사집』은 저작의 시기별로 편집되어 있으므로, 『옥담유고』 상과 下로 부르는 것이 온당하다.⁷⁾

이응희의 저술은 1960년 무렵 石版本으로 인쇄되었는데 『完山世稿』가 그것이다. 『완산세고』는 『玉潭公稿』에 『七子聯芳稿』와 『進士公稿』, 『靜齋公稿』를 합쳐 2책으로 묶은 것이다. 『옥담공고』는 『옥담유

4) 안양공과 후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다.

5) <遺事>(『完山世稿』)에 이응희의 시가 1000여 편인데 병화에 소실되고 두 권의 문집만 남았다고 하였다.

6) 『옥담사고』의 마지막 면에 “己丑二月十二日畢書”라고 하였는데 지절이나 글씨 등으로 보아 1760년 무렵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필사자는 알 수 없다.

7) 손자 李挺宇의 <七成屏跋>(『完山世稿』)에는 문집이 1책이라 하였으므로, 원래는 1책으로 묶여 있었던 듯하다.

고』와 『옥담사집』에 실린 시 중 일부를 뽑고 그곳에 실려 있지 않은 몇 편의 글을 더한 것이지만,⁸⁾ <만물편> 등 한시사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자료적 가치는 오히려 크게 떨어진다. 『칠자연방고』는 이응희의 일곱 아들의 시를 모은 것이다. 이응희는 副提學을 지낸 金偉의 따님인 慶州金氏와 혼인하여⁹⁾ 斗興·斗成·斗揚·斗榮·斗煥·斗平·斗光 등 아들 일곱과 尹璣과 朴宗蕃에게 출가한 두 딸을 낳았다. <遺事>에 따르면 이들이 모두 문장에 뛰어나 세상에서 七斗文章이라 칭송하였다고 한다. 안양군이 비명에 간 이래 이응희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다가 이응희의 아들 대에 이르러 비로소 과거를 보기 시작하여 아들과 손자대에 7인의 생원을 배출하였지만, 그 후에도 현달하지는 못하였다.¹⁰⁾

이응희는 평생 시를 짓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으니 시인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불행히 당대에 그 이름이 널리 떨쳐지지 못하였고, 또 그 저술이 후세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 『옥담유고』에 남아 있는 시만으로도 이응희는 한국 한시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응희 당대의 조선 시단의 추이는 宋風 일변도에서 唐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으며, 일부 선진적인 문인들은 詩必盛唐의 구호를 외치는 復古派의 문학이론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기 향촌의 시인 이응희는 문단의 풍상에 휩쓸리지 않고 杜甫의 시를 모범으로 하여 담박한 시를 제작하였다. 이응희 한시가 이룩한 가치는 두보의 한적한 생활을 노래한 시를 잘 배우되, 스스로의 일상생활에 체화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다음 작품에는 향촌에서 담박하게 살아가는 이응희의 생활상이 잘 드러난다.

아침 햇살이 산창을 비추니
초가에 따스한 기운이 인다.
처자식은 삼과 모시를 삼고
어린 아들은 시경을 외우네.
문 앞에 개 한 마리 짓더니
약을 파는 행상이 들렀다네.
올해는 곡가가 매우 비싸도
약값은 따질 엄두 나지 않네.
朝日照山窓 白屋煖氣生
妻孥執麻枲 稚子誦詩經
門前一犬吠 賣藥行商過
今年粟米貴 莫得論其價

이응희, <아침 창(朝窓)>(『玉潭遺稿』)

수리산 산속의 집에 아침 해가 비치니 밤새 떨렸던 초가집에도 온기가 돈다. 아침이 되자 늙은 처는 길쌈을 하고 아이는 그 곁에서 책을 읽는다. 개 짓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가보니 약 파는 행상이 들렀다. 마흔

8) 『옥담공고』에만 보이는 것으로는 <享老樸帖跋>과 <祭石泉先生文>, <明善大夫行德城副正墓誌> 등이 있다. <향로계첩발>에 따르면 柳純仁, 沈溥, 柳友仁, 安弘濟, 宋珪, 李元得, 李敬一, 韓德及, 安重行 등과 절친하였다고 한다. 이들 인물 중 이경일은 같은 왕실로 永興正에 봉해진 사람인데 이응희의 당숙이고, 한덕급은 체천현감을 지냈으며, 이원득은 조선 중기의 名相의 李元翼과 4촌간이다. 이들을 포함한 평생의 지기들은 역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지 못한 평범한 향촌의 사족이었다.

9) 조선 중기의 名儒 松匡 金慶餘가 그의 처조카다. 이응희는 김경여와 여러 차례 시를 주고받았는데 그의 문집 『松匡集』이 온전하지 않아 이응희과의 교분에 대한 자료는 실려 있지 않다. 『

10) 『진사공고』는 이정우의 시 1편과 문 1편을 묶은 것이고, 『정재공고』는 이두환의 손자요, 이정규의 손자인 靜齋 李思永(1708-1760)의 문집으로 약간 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을 훌쩍 넘긴 나이인지라 아픈 곳이 많다. 올해는 흉년이 들어 쌀값을 잘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약을 사서 먹을 여유는 없다. 산촌 마을에 담박하게 살아가는 이응희의 모습이 절로 한 편의 풍속화처럼 다가온다. 이응희의 시가 杜甫의 시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하였거니와, 두보가 <강마을(江村)>의 마지막 두 연에서 “늙은 처는 종이에 바둑판을 그리는데, 아이놈은 바늘 두드려 낚시 바늘 만드네. 병이 많아 필요한 것 오직 약봉지니, 늙은 내가 이외에 또 무엇을 구하라(老妻畫紙爲碁局, 稚子敲針作釣鉤. 多病所須惟藥物, 微軀此外更何求)”라 한 것을 절로 연상하게 한다.

두보의 시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강마을>에서 보는 것처럼 한적한 맛을 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스케일 큰 웅장한 시를 짓기도 하며, 복잡하고 난잡한 구절로 사람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는 작품도 남겼다. 이응희의 한시에서는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시를 배워 창작에 응용한 사례도 찾을 수 있지만, 자신만의 개성을 읽을 수 있는 시는 바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향촌 사회의 체험을 소박하게 읊조린 것이다.

동짓달에 서리와 눈이 내리니
 농가에는 월동 준비를 마쳤다.
 오지 솥에는 콩죽이 끓는 소리
 먹으니 그 맛이 꿀처럼 달구나.
 한 사발에 땀이 뻘죽 나고
 두 사발에 몸이 훈훈하여라.
 아내와 자식들을 돌아보면서
 “이 맛이 깊으면서도 좋구나.”
 아내와 자식들은 웃고 돌아보며
 “밥상에 고량진미 없는 걸요.”
 “고량진미 말할 것 무엇 있나,
 고기반찬도 무상한 것 모르나?”
 復月霜雪至 田家寒事畢
 瓦釜鳴豆粥 食之甘如蜜
 一碗輕汗出 二碗溫氣發
 相顧語妻孥 此味深且長
 妻孥笑相顧 盤膳無膏粱
 膏粱安可說 肉食知無常

이응희, <콩죽(豆粥)>(『玉潭遺稿』)

1625년의 작품이다. 이 해 가을 풍년이 들었다. 쌀 한 말이 배 한 자 값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다. 가을걷이를 마치고 겨울을 날 채비도 다 끝낸 동짓날, 가족들이 둘러 앉아 콩죽을 먹는다. 한 사발 먹으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입맛이 돌아 한 사발 더 먹고 나니 기운이 난다. 처자에게 정말 맛있지 않느냐고 동의를 구한다. 처자는 고기반찬도 없는 평범한 콩죽이 대단할 것 있느냐 편잔을 준다. 이에 이응희는 높은 벼슬을 하여 진수성찬을 먹는 이도 언젠가 벼슬이 떨어지고 나면 그뿐이니, 진수성찬이 무상한 것이라 하였다. 가난한 살림에서 오히려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처자를 다독인다. 저녁상을 마주한 가족의 단란한 모습이 선하다. 가족들의 대화가 시에 인용되어 있어 더욱 더욱 소박한 맛을 느끼게 한다.

닭 울음소리 그치지 않는데
 하늘 가득한 별이 스러지누나.
 집집마다 등잔 심지 돌워놓고
 시골 아낙들이 길쌈을 하누나.
 산골 아이는 소를 먹이려고
 오지 솔에다 콩깍지를 삶는다.
 쇠죽이 벌써 다 익었나 보다
 부글부글 쇠죽 끓는 소리 들리니.
 소 먹이라도 마구해서 안 된다네.
 우리 집이 그 힘으로 먹고 사니.
 金鷄鳴不已 滿天星斗落
 家家燈花闌 村婦事紡績
 山童亦飯牛 瓦釜烹豆穀
 既已爛牛食 聞粥粥牛食
 牛食不可忽 農家食其力

이응희, <새벽의 일(曉事)>(『玉潭遺稿』)

한시는 기본적으로 사대부의 것이다. 사대부도 물러나면 향촌에 살지만, 시골살이가 몸에 딱 붙지는 못한 다. 그러나 이응희는 그러하지 않았다. 첫닭이 울었지만 아직도 깜깜한 밤인데도 모두들 일어나 부산하다. 아낙네는 등잔불을 켜고 길쌈을 하고 아이는 콩깍지를 삶아 쇠죽을 끓인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이응희는 아이에게 한 마디 덧붙인다. “저 소란 놈이 우리 집 먹여 살리니, 소 먹을 것이라 하여 함부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거라.”

이응희의 시는 이렇하다. 이응희는 近體 律詩와 같이 형식이 딱 짜인 시도 잘 지었지만, 오히려 형식이 자유로운 고시도 많이 지었다. 자유로운 형식에 17세기 초반 향촌의 생활상을 자연스럽게 풍속화처럼 그려 내었다. 이러한 작품과 더불어 이응희는 향촌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것도 꾸밈없이 시로 드러내면서, 당시 향촌 하층민의 고통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솥 파는 일 얼마나 고생인가
 솥 팔아도 남은 양식이 없어라.
 송곳 꽃을 땅 한 뼘 떼기 없으니
 본업은 농사와 양잠이 아닐세.
 아침엔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고
 저녁엔 구덩이 파서 솥을 굽는다.
 나는 재 낮에 묻어 용모는 폐쇄되,
 뜨거운 불길 몸을 데워 땀은 줄줄.
 열 손가락 다 휘고 살갗은 다 뺏는데
 허름한 옷 너털너털 정강이도 못 가린다.
 고생스레 솥을 지고 저자거리에 들어가니

추위에 다리 얼어 힘없어 휘청휘청.
 아동들은 거리에 모여 손뼉 치며 웃나니,
 산 귀신이 어이하여 이 대로에 왔느냐고.
 올해는 날씨가 덜 추워 숲이 비싸지 않아
 동쪽 서쪽 다 다녀도 하나도 팔지 못했네.
 집에 오니 처는 원망하고 아이는 배고파 우니
 하늘에 하소연해도 하늘은 아득하기만 해라.
 사람이 타고난 운명이 저마다 다르니
 술과 고기 냄새 풍기는 고대광실을 보라,
 賣炭何苦業 賣炭無餘糧
 身無立錐地 本業非農桑
 朝入山中伐山木 暮鬪深坑燒碧炭
 飛灰入面狀貌黑 烈焰燻身流赭汗
 十指如鉤肌膚裂 短褐懸鶉不掩脚
 辛勤擔負入城市 凍脚無力行欹傾
 兒童亂街拍手笑 山鬼何能臻紫陌
 今年無冰炭不貴 足徧東西終未鬻
 歸來妻怨子啼飢 仰訴皇天天漠漠
 人生賦命各有差 請見朱門臭酒肉

이윤희, <숯장수의 고생(賣炭苦)>(『玉潭遺稿』)

숯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민중의 삶을 걸개그림처럼 그렸다. 이윤희는 <빨나무 파는 노래(賣薪行)> (『玉潭遺稿』)를 지어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해서 파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 노래한 바 있다. 그 노래에서는 한양에 들어가 나무를 팔려하니 나무 장사가 많아 팔리지 않고 시골에서 팔려하니 제각기 나무를 해서 불을 때는 바람에 팔 데가 없는 가난한 민중의 삶을 노래한 바 있다. 숯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생애는 그보다 더욱 고달프다. 겨울에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하느라, 손가락이 다 휘고 살갗은 터서 갈라질 지경이다. 힘들게 나무를 지고 와서 숯을 굽느라 얼굴은 온통 숯검정이다. 어렵게 만든 숯을 팔려 나섰지만, 아이들은 산에서 내려온 귀신이라 놀려댄다.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니 처는 원망하고 아이는 배고프다 운다. 이윤희는 이러한 고통 받는 민중의 삶에 대해서 따뜻한 온정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윤희의 시는 이러하다. 이윤희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평생을 향촌에서 조용히 살았다. 벗이나 인척이 찾아오면 그들과 시를 지었다. 서당을 열고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일곱 아들이 장성한 후에는 그들을 불러 가족간에 詩會도 가졌다. 노년에 병마로 고생하였지만 이러한 삶은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생활을 담담하게 시에 담았다. 다듬고 꾸미기보다는 보고 듣고 겪는 일상생활을 담담하게 시에 담은 것, 이것이 이윤희의 시가 이룩한 개성이고 큰 성취라 할 수 있다.

3. 만물을 노래한 연작형 영물시 <萬物篇>과 <詠鳥>

1) 백과사전으로서의 <만물편>

이응희의 한시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시로 쓴 백과사전을 저술하였다는 점이다. 이응희는 <萬物篇>이라는 280수 연작시를 제작하여, 인간세상의 만물을 하나하나 시에 담아내었다. <만물편>은 세상만물을 陰陽類·花木類·果實類·穀物類·蔬菜類·魚物類·衣服類·佩用類·文房類·舟車橋梁類·器具類·器皿類·樂器類·技局類·財物類·畜物類·禽鳥類·獸類·行蟲類·飛蟲類·飲食類·藥草類 등으로 나누었는데, 특히 어물류는 다시 東海產類·西海產類·江魚類·川魚類로 나누어 총 25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 다시 280종의 사물을 배열하고, 하나하나의 사물에 대하여 오언율시를 지었다. 우리 한시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천하의 만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술하는 것은 이응희 시대에 비로소 우리나라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좁게는 허균의 <도문대작>이 그러하고 넓게는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그러하다. <만물편>은 이러한 새로운 사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옥담사고』가 제작 연대에 따라 편집되었으므로 <만물편> 앞뒤의 시를 볼 때 <만물편>은 1649년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 <만물편>이 <도문대작>과 『지봉유설』보다 나중에 나왔지만 이를 참고한 것 같지는 않다. 사물의 분류 방식이 다르고 다루고 있는 사물도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이다. <도문대작>이 음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 해산물에 대해 가장 자세한데, <만물편> 역시 그러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문대작>에는 「海水族之類」에 송어·붕어·옹어·뱅어·누런조기·오징어·海驢·대맛·小螺·靑魚·큰전복·꽃전복·紅蛤·銀口魚·餘項魚·錦鱗魚·누치·쏘가리·복·魴魚·鰻魚·松魚·黃魚·가자미·廣魚·대구·문어·丁魚·銀魚·고등어·微魚·齊穀·江瑤柱·紫蛤·蟹·凍蟹·굴·輪花·大蝦·紫蝦·桃蝦 등을 들고 산지와 별칭, 맛, 기타 특성 등을 적었다.¹¹⁾ 그리고 民魚·石魚·首蘇魚·낙지·준치 등은 西海에서 나는 흔한 것인데 아무 곳에서나 잡히는 것이 다 맛이 있으므로 적지 않는다고 하였고, 瓶魚·變宗 등의 물고기는 맛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여 따로 적지 않는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편찬된 『지봉유설』에는 「禽蟲部」의 <鱗介>에 어패류가 나온다. 상상의 동물인 龍으로 시작하여, 자라·쏘가리·송어·청어·문어·오징어·낙지·餘項魚·누치·銀口魚·홍합·海殼·海菜·刀魚·가자미·대구·해참·袈裟魚·게·江瑤柱 등 다양한 해산물을 다루고 있다. 주로 중국 문헌을 중심에 두고 조선의 해산물과 연결하여 고증하고 있어, <도문대작>과 정보 제공 방식이 다르다.

<만물편>은 이와 또 다르다. <만물편>에는 고래·자라·대구·魴魚·靑魚·文魚·전복·가자미·銀魚·紅蛤·海蔘 등의 동해에서 나는 해산물, 洪魚·民魚·준치·조기·뱀뱀어·새우 등 서해에서 나는 해산물, 농어·송어·옹어·뱅어·잉어·쏘가리·붕어·게 등 강이나 개울에서 나는 어패류를 다루었다.

<만물편>과 <도문대작>에서 다른 어패류가 상당수 겹치지만 <도문대작>이 좀더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종 내에서도 더욱 자세하게 나누어 적고 있다. 허균의 경제력과 견문을 이응희가 따라가기는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도문대작>은 허균이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것이므로, 조선에서 당시 먹던 실제 음식 중에도 주로 명품이라 할 만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비하여 이응희는 실생활 주변에서 실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지봉유설』은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중국 문헌을 동원한 고증을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만물편》과는 기술 방식이 다르다. 청어를 예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1) 여기서는 鰻魚와 錦鱗魚를 별도로 들고 있지만 『지봉유설』에는 같은 물고기로 보고 있다. 동식물 중에 이러한 것이 상당수 있으므로 정밀한 고증이 필요하다.

(1) 이수광, <鱗介>(『지봉유설』)

청어는 봄철마다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많이 나는데, 선왕 경오년(1570년) 이후 전혀 나지 않고 있다. 들으니 중국 靑州 땅에서 많이 잡힌다 한다. 어찌 물산이 때에 따라 옮겨감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醫方』에서 이르는 청어는 우리나라 청어가 아니라 한다.

(2) 허균, <도문대작>(『성소부부고』)

네 종류가 있다. 關北에서 나는 것은 크고 배가 흰데, 경상도에서 잡히는 것은 등이 검고 배가 붉다. 호남에서 잡히는 것은 조금 작고 海州에서는 2월에 잡히는데 매우 맛이 좋다. 옛날에는 매우 흔했으나 고려 말에는 쌀 한 되에 40마리밖에 주지 않았으므로, 牧隱 李穡이 시를 지어 그를 한탄하였으니,¹²⁾ 난리가 나고 나라가 황폐해져서 모든 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어도 귀해진 것을 탄식한 것이다. 명종 이전만 해도 쌀 한 말에 50마리였는데 지금은 전혀 잡히지 않으니 괴이하다.

(3) 이응희, <청어(靑魚)>(『玉潭私稿』)

푸른 청어가 남해에서 잡히니
강으로 천 척의 배가 들어오네.
알에는 황금 좁쌀이 소복하고
창자에는 백설 같은 기름이 엉겼네.
구워서 맛난 밥을 먹을 수 있고
말려서 향긋한 막걸리를 마신다네.
생선의 질이 이처럼 높지만
값이 높은 것만 걱정한다네.
靑鮮南海產 江口入千艘
卵包黃金粟 腸凝白雪膏
炙宜饌美飯 乾可飲香醪
品貴能如此 偏憂索價高

조선 중기 청어에 대한 제각기 다른 정보를 이 세 자료가 제공하고 있다. 이수광은 1570년 이후 청어가 잡히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당시에 주로 보던 중국에서 들어온 의학서에 적힌 청어가 조선에서 흔히 잡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적고 있다. 허균은 산문 형식을 빌어 청어가 우리나라 도처에서 잡히는데 예전에는 가격이 싼지만 당시는 어획량이 줄어 가격이 높아졌다는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비하여, 이응희는 청어의 외양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주로 말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를 오연율시에 담아 시적인 운치까지 더하였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도문대작>은 음식과 관련한 것에 국한되어 280종에 달하는 세상 만물을 두루 소재로 한 <만물편>에 비하면 그 편폭이 매우 좁다. 게다가 <도문대작>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분량이 매우 적다. 청어의 경우는 그 정보가 가장 많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만물편>은 모두 오연율시로 제작되어 있어 균질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지봉유설』의 경우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종수는 훨씬 많지만, <만물편>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의 사물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하위에서 들고 있는 사물의 종이 그리 다양하지

12) 이색의 <賦靑魚>(『牧隱集』4-149)를 가리킨다. “斗米靑魚二十餘, 烹來雪盃照盤蔬. 人間尙求應多物, 白浪如山擊大虛”라 하여, 쌀 한 말에 20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하였으니 허균의 말과는 다소 다르다. 이하에서 따로 표시하지 않는 문집류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본의 권수와 면수를 밝힌다.

않다. 특히 복식이나 기물, 음식 등의 부류에서는 <만물편>에서 다루고 있는 사물이 <도문대작>이나 『지봉유설』에 비하여 더욱 다양하다.

2) <만물편>의 구성과 내용

<만물편>은 백과사전처럼 25종의 유형을 설정하고 다시 그 아래 280개의 사물을 나열한 다음, 해당 사물에 대한 시를 붙였다. <만물편>의 <陰陽類>에는 陰陽, 金·木·水·火·土의 五行, 東·西·南·北의 방위, 春·夏·秋·冬의 계절, 靑·黃·赤·白·黑의 색채, 朝·暮·晝·夜의 시간, 寒·暑의 기후 등 추상적인 사물을 먼저 다루었다.

「花木類」에는 당시 문인의 주거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24종의 꽃나무를 들고 있다. 소나무·갯나무·대나무·국화·매화·황매화·모란·紅桃·碧桃·三色桃·장미·四季花·작약·해당화·연꽃·山丹花¹³⁾·玉梅·진달래·철쭉·버드나무·단풍나무·오동나무·芳草·蘭草 등을 정원에 심거나 교외에서 쉽게 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실류」에는 복숭아·오얏[李]¹⁴⁾·살구·앵두·능금·포도·석류·모과·배·밤·대추·감·호두·은행·잣·개암·楸子·팥배·藤子¹⁵⁾·왕머루·유자·귤·柏子 등 23종을 들고 이들 과실의 외형과 효능에 대해서 시로 읊었다.

「穀物類」에는 쌀·찰기장·메기장·차기장·메조·차조·보리·밀·콩·팥·녹두·메밀·율무·수수·깨·들깨 등 16종을 시로 읊은 것이 수록되어 있다. 율무가 체증을 낮게 하고 떡으로 만들면 먹기도 하였으며, 들깨는 가래를 삭히고 들깨기름은 방습의 효과가 있으며 말린 잎을 달여 먹으면 악취를 제거한다고 하는 등, 각 곡물의 조리법과 효능 등을 두루 다루었다.

채소류를 다룬 「蔬菜類」에는 수박·참외·오이·토란·상추·파·마늘·가지·아욱·생강·겨자·부추·차조기·동아·고사리·삼주·계목·순채 등 18종을 다루었다. 오이는 구이를 해먹기도 하고 물에 담가놓았다 먹기도 한다고 하였고, 파는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신장을 강하게 해준다고 하였으며, 차조기와 동아는 죽을 해먹는다는 등 채소류의 조리법과 효능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참외를 예로 보인다.

참외라는 이름에서 ‘참’의 의미는
그 이치를 내 따져 알 수 있다네.
짧은 놈은 唐種이라 부르고
긴 놈은 물통이라 부른다지.
베어놓으면 금빛 씨가 흩어지고
깎아놓으면 살이 꿀처럼 달지.
품격이 전부 이와 같으니
서쪽 오이란 말과 한가지라네.
名眞意有在 其理我能窮
短體稱唐種 長身號水筒
剝分金子散 條折蜜肌濃
品格渾如此 西瓜語必同

이응희, <참외(眞瓜)>(『玉潭私稿』)

13) 예전에는 버선꽃, 혹은 각시꽃, 아기씨꽃이라 불렀는데, 동백꽃의 별칭으로 보기도 한다.

14) <도문대작>에는 紫桃와 綠李를 따로 분류하고 있어 오얏과 자두가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5) 藤子是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과일인데 자세한 것은 찾지 못하였다.

참외는 『高麗圖經』에 그 이름이 보이니, 이른 시기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과일이다.¹⁶⁾ 『지봉유설』에는 栝瓜와 같다고만 하였고, <도문대작>에는 “義州에서 나는 것이 좋다. 작으면서도 씨가 작은데 매우 달다.”고만 적었다. 그러나 <만물편>에서는 길이가 짧은 품종이 있어 唐種이라 하고 긴 품종이 있어 물통[水筒]이라 한다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수록하여 있거니와, 참외의 외형과 맛을 두루 잘 드러내었다. 서과, 곧 수박과 함께 이 시기 가장 맛난 과일로 대접받았음을 이 시에서 알 수 있다. 이용희가 <만물편>에서 읊고 있는 곡물이나 과일, 채소 등은 우리 문학사에서 거의 시로 읊은 적이 없는 것들이다. 이용희는 <만물편>에서 이들 생활 주변의 사물에 대해 하나하나 오언율시에 담아 사전의 기능까지 겸할 수 있게 하였다.

<만물편>은 특히 어패류에 대해 가장 자세하다. 바다에서 나는 어패류를 「魚物類」라 하고, 다시 동해와 서해에서 나는 어패류를 나누어 시로 읊었다. 또 강과 개울에서 나는 민물고기를 다시 나누었다. 동해에서 나는 11종의 어패류로 고래·자라·대구·방어·청어·문어·전복·가자미·은어·홍합·해삼 등을 들었는데 그중 고래와 자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식단에 올린 것들을 들었다. 그 중 은어는 동북 지방의 해안에서 나는 것으로 말려서 구워먹거나 간장에 졸여서 먹기도 하고 콩잎과 함께 먹으면 천하의 진미라 하였는데, 요즘 강으로 올라온 은어를 회로 먹는 것과는 풍습이 다소 다르다.

서해에서 나는 6종의 어패로는 홍어·민어·준치·조기·밴댕어 새우 등을 들었다. 민어는 탕으로 먹으면 좋고 회로 먹기에는 마땅하지 않으며 말려서 먹으면 더욱 맛이 좋다고 하였다. 준치는 회와 탕이 모두 좋다고, 조기는 탕과 구이가 좋다고 하였다. 밴댕어는 상추쌈으로 보리밥과 함께 먹을 때 진미라 하였다. 해물에 따른 조리 방법을 자세히 적었으니, 이용희의 실생활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江魚類」는 농어·숭어·옹어·뱅어 등 4종의 큰 민물고기를 들었는데, 뱅어의 경우 회를 뜨기 어려워 탕으로 막는다고 하여 지금 날것을 통으로 먹는 것과는 풍습이 다르다. 「川魚類」에서는 개울에서 나는 잉어·쏘가리·붕어·게 등을 들고 물고기의 특성과 함께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衣服類」에서는 일반적인 의복 외에 여우가죽옷·양가죽옷·솜옷·홀옷 등 당시 가장 일반적인 옷, 그리고 冠과 허리띠, 笏 등 8종을 두고 시를 지었으며, 「佩用類」에서는 노리개·수건·부채·빗집·지팡이·빗·刀·劍·활·화살 등 당시 선비들이 지니고 다니던 10종의 사물에 대해 시를 지었다. 「文房類」에는 붓·먹·벼루·종이·연적·향로·궤안·燈·촛불·博山 등 10종을 들었다.¹⁷⁾ 「舟車橋梁類」에는 배와 수레, 교량을 두고 시를 읊었다.

「器具類」는 20종에 이르는 집 안팎의 기물을 두고 읊은 것이다. 그림병풍·소나무 평상·발·장지·휘장·땃자리·베틀·다듬잇돌·키·빗자루·말·저울·비녀·거울·가위·자·광주리·낮은등잔걸이·높은등잔걸이·무늬를 넣어 짠 자리 등 잡다한 생활용품을 다루었다. 「器皿類」 역시 소반·순가락젓가락·가마솥·세발솥·술동이·술병·술잔 등 8종의 생활 용품을 두고 시를 지었다. 「樂器類」에서는 종·북·琴·笛 등 4종을 시에 담았다. 또 「技局類」에서는 바둑·博·將棋·投壺 등 4종이 나열되어 있다. 「財物類」는 돈을 대신하여 쓸 수 있는 18종의 물건을 다루었는데, 돈 이외 황금·白玉·銀과 같은 귀금속, 紗·羅·綾·段·白紬·細布·麤布·白苧布·綿布·繭·繭絲·木棉花·桑·麻 등 화폐처럼 쓰이는 옷감류를 두고 시를 지었다.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이러한 잡다한 사물을 두고 연작의 시를 읊은 예는 <만물편> 외에 거의 찾기 어렵다.

「畜物類」에는 말·소·돼지·양·거위·오리·닭·개·고양이 등 9종을, <금조류>에는 까마귀·까치·부엉이·올빼미·박쥐 등 5종의 조류를, 「獸類」에는 기린·범·사슴·원숭이·여우·삿·다람쥐·

16) <만물편>에는 참외와 수박 등이 과일이 아닌 채소로 분류되어 있다.

17) 박산은 신선이 산다는 섬으로, 그 모양으로 향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용희의 집에 있던 것은 완상용 假山이었던 듯하다.

취 등 7종을 다루었다. 벌레는 기어다니는 「行蟲類」와 날아다니는 「飛蟲類」로 나누었다. 행충류에는 용·거북·뱀·두꺼비·개구리·지네·지렁이·개미·거미·귀뚜라미·칠썩기·사마귀 등 12종을 다루었고, 비충류에는 나비·잠자리·매미·왕벌·꿀벌·반딧불이·모기·등에·파리·하루살이 등 10종을 다루었다.

「飲食類」에는 밥·국·구이·탕·면·떡·만두·회·식염·소금·장·차·술 등 13종을 다루었다. 식염과 소금의 차이는 잘 알 수 없지만, 바닷물을 졸여 흰 소금을 만드는데 콩에 담가두면 붉은 빛이 돌며 단 맛이 나고, 오이를 절여두면 색이 노랗게 된다고 하였고, 식염은 찹에 넣어두어 깨끗하게 하고 생선이 상하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구이는 식전에 먹는 음식이라 하고 부잣집에서는 고기적을, 가난한 집에서는 菜瓜를 먹는다고 하였다. 장은 콩을 삶아서 가루를 낸 다음 소금을 뿌려 독에 담아두면 호박과 같은 붉은빛이 도는 간장을 얻을 수 있고, 아래쪽에 노랗게 쌓인 된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차는 丫山의 이름난 품종을 수입하여 마셨다고 적고 있다. 만두는 이응희가 매우 좋아한 음식으로 이렇게 시를 지었다. 물론 이러한 음식에 대한 연작시 역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우리집 솜씨 좋은 며늘아기
물만두 예쁘게 잘 만든다네.
옥가루에 금빛 조를 소로 만들어
은빛 피에 싸서 쇠 냄비에 띄운다.
생강을 넣으면 매운 맛이 좋고
짹짹하게 하려 장을 듬뿍 붓는다.
한 사발 새벽녘에 먹고 나면
아침이 지나도록 밥 생각 없다네.
吾家巧媳婦 能作水饅嘉
玉屑韜金粟 銀包泛鐵鍋
苦添薑味勝 鹹助豆漿多
一椀吞清曉 崇朝飯不加

이응희, <만두(饅頭)>(『玉潭私稿』)

만두는 고려시대부터 우리 식단에 널리 오르던 것인데, <도문대작>에는 “義州 사람들이 중국 사람처럼 잘 만든다. 그 밖에는 모두 별로 좋지 않다.”고 짧게 적었고 『지봉유설』에는 만두에 대한 기록이 없다. 물론 만두를 비롯하여 <만물편>에 등장하는 많은 음식을 두고 지은 시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만물편>에서는 자신의 생활과 관련하여 물만두를 맛있게 먹는 법을 자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藥草類」에서는 蓼·二朮·茯苓·黃精·山藥·胡椒·川椒 등 7종을 들고 있는데, 후추는 남방에서 수입하고 천초는 蜀에서 생산되던 것인데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퍼졌으며 이응희의 집에서 재배하였다고 하는 등, 이런 약초의 유래와 효능 등을 시에 담았다. 약을 대상으로 한 연작시 역시 <만물편>에서만 확인할 수 있거니와, <만물편>에 수록된 다양한 사물을 연작으로 노래한 영물시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3) 새에 대한 연작시 <詠鳥>

이용희는 <만물편> 외에도 사물을 두고 연작시를 즐겨 지었다. <만물편>을 제작한 1649년보다 훨씬 이른 때인 1615년 과천에 살던 벗 安處行과 시를 주고받으면서 자연 현상을 두고 연작시를 지은 바 있다. 처음에는 하늘·해·바람·이슬·땅·달·서리 등 여덟 가지 사물을 두고 시를 지었는데 나중에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다시 여기에 星辰·은하수·무지개·안개·노을·우레 여섯 가지를 더하여 도합 14종의 사물을 연작시로 노래하였다.¹⁸⁾ 여기서 든 사물은 <만물편>의 「陰陽類」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짚은 시절 사물에 대한 영물시를 즐겨 짓다가 노년에 하나의 체계를 갖추어 온갖 사물을 두루 망라하여 <만물편>을 제작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물편>에 「禽鳥類」를 두어 5종의 새에 대해 시를 수록하였는데, 새의 종수가 매우 빈약하다. 그 이유는 1646년 52수의 새에 대한 연작시를 이미 지은 바 있기 때문이다. 곧이 다시 새에 대한 연작형의 영물시를 지을 필요가 없기에 다루지 않은 새만 대상으로 하여 「금조류」를 갖춘 것이다. 따라서 天地와 日月星辰 등을 노래한 작품은 「음양편」에 넣고 새에 대한 영물시는 「금조류」에 넣어야 더욱 온전한 <만물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용희가 새를 대상으로 한 방대한 영물시를 지은 것은 <만물편>보다 앞선 1646년 봄의 일이다. 이때 이용희가 병이 들어 누워 있다가 산속에서 새들이 서로 다른 소리로 우는 것을 듣고 <詠山鳥十八首>를 지었다. 黃鳥·鼎小·熟刀·嘔浴·呼蘆·不得·燠燠·疎棄攝·布穀·山鳩·願死·胡逃·啄木·從達·武鳥 등 15종에 달하는 우리나라 산새를 들어 오언절구로 시를 지었다. 새 이름은 울음소리에서 유래한 것이 대부분으로 당시 민간에서 부르던 명칭을 반영한 것인데 제목 아래 작은 주석을 넣어 울음소리와 별칭, 전설 등을 적고 있어 이 시기의 조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黃鳥는 곧 피꼬리로 黃鶯이라고도 하고, 정소는 예전에는 솔작다새라고도 불렀는데 곧 소쩍새로, 杜鵑이라고도 한다. 시에서는 풍년을 기려 솔이 작다(鼎小)라 운다고 하였다. 熟刀는 민간에서 熟刀鳥라 부른다고 하였는데 곧 썩독새다. 시에서는 효자가 부모에게 맛난 음식을 봉양하려다가 그 혼이 새가 되어 칼로 찌는 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葫蘆라는 새는 직박구리라는 텃새로 提壺, 혹은 提葫蘆라고도 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呼蘆稷粥’으로 들려 호로로피죽새라고도 부른다. 布穀은 삌꾸기, 山鳩는 메비둘기, 啄木은 딱따구리를 가리킨다. 從達은 종다리로 종달새, 노고지리로도 알려져 있는 새다. 민간에서는 金從達이라 부르는데 ‘欲歸’라는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고, 시에서는 버림받은 며느리의 혼이 붙은 새라 하였다. 嘔浴은 민간에서 嘔浴鳥라 부른다 하였는데 시의 내용에서 於陵의 陳仲子가 청렴하여 不義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형이 가져온 부정한 거위를 모르고 먹었다가 나중에 알고 토하였다는 고사를 인용하였지만, 거위가 아니라 鸚鵡鳥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 새는 八哥라고도 하는데, 날 때에는 八字 모양을 이루고 사람 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한다. 願死는 울음소리가 ‘願死’처럼 들리는 새인데 다른 사람의 시에는 ‘欲死’, ‘我欲死’, ‘死去’ 등으로 울음소리를 형용하기도 하므로, 죽고 싶다는 말을 표현한 듯하다. 새타령에서 ‘주걱啼禽’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새다.¹⁹⁾ 여기서는 썩독새를 예로 보인다.

효자가 맛난 음식 이바지하여
부모님을 지성으로 받드네.
남은 혼이 새가 되었나 보다
늘 썩독썩독 도마질 소리 내니.
孝子供甘旨 翁孀奉至誠

18) 이용희, <和安十九秀才詠天日風露地月霜八首>, <次安十九秀才所云詠天日風露地月霜八首後仍思星辰河漢虹霞霧雷霆六象以廣之> (『옥담유고』).

19) ‘주걱새’로 보아 두견새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희는 ‘두견’을 소쩍새로 보고 별도로 다룬 바 있으므로 다른 새일 가능성이 높다.

餘魂應化鳥 長作扣刀聲

이응희, <숙독새(熟刀)>(『玉潭私稿』)

시에서는 효자가 부모에게 맛난 음식을 봉양하려다가 그 혼이 새가 되어 칼로 썰는 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숙독새라는 이름 자체가 칼로 무언가를 썰는 소리를 형용한 것이다. 실제 숙독숙독 하고 우는 새울음 소리가 도마질하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러한 시를 새울음을 형용한 시 禽言體라 한다.²⁰⁾

다른 금언체 시에서 다른 나머지 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胡逃라는 새는 울음소리가 ‘胡逃’와 비슷한데 오랑캐로부터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뜻을 시에 담았다. 그 음으로 보아 후투티라는 새를 가리키는 듯하다. 또 울음소리가 ‘疎棄攝’으로 들린다는 소기섭이라는 새에 대해서는, 어떤 집에 새로 들어온 처와 예전 처가 함께 절구를 찧는데 새로 들어온 처가 예전 처의 아이를 데려다 절구에다 넣고는 달아나버렸는데, 예전 처가 힘이 빠져 들고 있던 절구를 놓아 아이를 죽게 하였다는 전설을 소개하고 있다. 不得은 ‘不得不得’이라 우는 새로, 屈原이 임금으로부터 등용되지 못하자 한이 맺혀 이 새가 되었다고 하였다.²¹⁾ 燻燻이라는 새도 울음소리가 ‘燻燻’으로 들리는데, 훈훈한 온기가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새라고 하였다.²²⁾ 武鳥라는 새는 활을 쏘는 것과 유사한 소리를 낸다고 하였는데 휘파람새 종류인 듯도 하다. 이러한 새는 다른 문헌에도 그 이름이 확인되지 않아 어떤 새를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

이응희는 여기에 더하여 더욱 다양한 종류를 덧붙여 <詠群鳥二十一首>를 지었다. 여기에는 20종의 새를 두고 지은 오언절구가 연작으로 실려 있다. 鳳凰·鸞鳥·孔雀·鸚鵡·翡翠·白鶴·青鳥·蒼鷹·鴝鵒·野翟·鷓鴣·鶻鷂·田鶻·鷓鴣·鷓鴣·鷓鴣·孝鳥·喜鵲·燕燕·黃雀·黔禽 등이 그것이다. <만물편>에서 대부분의 사물은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용과 기린 등과 같은 상상의 동물을 넣은 것처럼, 여기에서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봉황이나 난새 등을 넣었다. 또 青鳥가 피꼬리의 별칭이지만 이미 앞서 피꼬리를 따로 다루었고 시에서 西王母의 사신으로 등장시킨 것으로 보아 신화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공작새나 앵무새, 비취새 등은 여러 경로로 조선에 들어와 있었지만 이응희가 직접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시에서도 문헌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을 뿐이다.

그밖의 새는 대체로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새들이다. 白鶴은 조선시대 문인의 뜰에서 키웠다. 蒼鷹, 곧 매는 사냥에 필수적이므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鴝鵒는 『시경』에 <鴝羽>라는 편명이 있어 문인들에게 익숙하고 예전에는 매우 흔한 새였는데 느시, 혹은 능애라고도 불렀다.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새는 ‘후후’ 소리를 내면서 운다. 시에서는 말을 조심한다는 점을 들었다. 野翟은 들판에 흔한 꿩을 가리키고, 鷓鴣는 매추라기와 유사한 흔한 들새다. 鶻鷂은 피꼬리이므로 앞서 黃鳥 역시 피꼬리인데 서로 종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田鶻은 매추라기로 그 맛이 매우 좋아 다투어 잡는다고 하였다. 鷓鴣는 뱀새로 굴뚝새, 붉은머리오목눈이라고도 하는 조그만 흔한 새다. 孝鳥는 까마귀로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뜻에서 이른 것이고, 희작은 까치로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하여 이른 것이다. 燕燕은 제비, 黃雀은 참새를 이른다. 黔禽은 울타리에 숨어 사는 새로 인간사를 몰래 감시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새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새는 모두 산이나 들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응희는 물새를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詠水鳥十三首>를 더 지었다. 여기에 나오는 12종의 물새는 大鵬·鴻雁·老鸛·白鷗·青鷗·白鷺·鳧

20) 금언체에 대해서는 정민, <禽言體詩 연구>(『한국한문학연구』 27집, 2001)에 자세하다. 정민 교수의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효형출판, 2003)에 우리 문화사에서 중요한 새에 대한 고증이 상세하다. 이하 새에 대한 정보는 이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아울러 정민 교수는 이 원고에서 새에 대한 조연을 상세하게 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21) 黃庭堅의 <戲詠零陵李宗古居士家馴鷓鴣>에서 “終日憂兄行不得, 鷓鴣應是鼻亭公.”이라 하여, ‘行不得’을 자고새의 울음소리로 형용하였으므로 자고새를 가리킬 수 있지만, 이응희는 자고새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다른 새일 가능성이 높다.

22) 『詩經』 <鳧鷖>에 “鳧鷖在薺, 公尸來止熏熏.”이라 하였으므로 부에, 곧 물오리를 가리킬 가능성도 있다.

鴨·鷗鷺·多霍·鴛鴦·飛鷺·精衛 등이 있다. 전설에 등장하는 大鵬과 精衛를 제외한 나머지는 흔히 볼 수 있는 바다새다. 鴻雁은 기러기, 老鶴은 황새, 白鷗는 흰 갈매기, 青鷗는 푸른 갈매기, 白鷺는 왜가리, 鳧鴨은 오리, 鷗鷺는 가마우지, 鴛鴦은 원앙이, 飛鷺는 집오리다. 多霍은 강직한 새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소리로 보아 따오기인 듯하다. 이응희는 이들 새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오언절구를 지어 새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이응희는 도합 47종의 새를 52편으로 시에 담았다. 역대 새를 두고 이렇게 많은 시를 지은 시인은 없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새에 대한 시는 주로 禽言體라는 특수한 양식을 따른 것이 많다. 한국한시사에서 금언체가 일찍부터 발달하였지만, 제재로 삼은 새의 종류는 많아야 대역섯 종이다. 이응희와 비슷한 시기 柳夢寅이 지은 <鳥語十三篇>가 이 무렵까지 가장 많은 다양한 새를 노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을 통틀어 구한말 崔永年의 <百禽言> 46수가 가장 방대한 규모라 할 수 있지만, 이응희의 연작시에 비할 바 아니다.²³⁾ 이응희가 제작한 일련의 새에 대한 영물시는 이 점에서 기릴 만하다.

4. 연작형 영물시의 전통과 <萬物篇>의 의의

<만물편>이나 <영조>와 같은 백과사전을 겸한 연작형의 詠物詩는 이응희 이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양식이다. 이응희 이전의 작품 중에 이와 유사한 예가 김시습의 『梅月堂集』에 보인다. 『매월당집』은 菓實·器用·燈燭·文房·食物·酒·茶·禽·獸·蟲·魚·竹·木·花草·菜·菌蕈·醫藥 등 소재에 따라 분류하고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사물에 대한 시를 수록하였는데 상당수가 <만언편>에서 보이는 것들이다. 그러나 일시에 다양한 사물을 유형별로 나누고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문집을 편집할 때 이러한 분류에 따라 모은 것에 불과하므로,²⁴⁾ <만언편>과 같은 백과사전식 연작시라 보기는 어렵다. 또 해당 부류에 속한 사물을 소재로 삼았지만 영물시가 아닌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세상 만물을 유형별로 모아 제작한 연작형 영물시는 이응희의 <만물편>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특정 부류의 사물을 모아 연작시로 지은 예는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앞서 본 금언체 한시가 새를 대상으로 한 연작형 영물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새를 소재로 한 작품을 제외하면 연작형 영물시는 대부분 花卉나 草木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생활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꽃과 나무, 괴석 등 정원을 꾸미는 사물을 중심으로 한 영물시가 고려 이래로 꾸준히 제작되었다. 이미 고려시대 李奎報가 四季花·국화·瑞祥花·석류꽃·대나무·창포 등 여섯 식물을 소재로 한 연작시를 제작한 바 있거니와,²⁵⁾ 특히 조선 초기에는 한양이 수도로 새롭게 번성하면서 사족들의 주거공간과 관련한 연작형의 영물시가 많이 제작되었다. 安平大君이 <匪懈堂四十八詠>을 제작하여 자신의 정원에 있던 사물을 읊조리자 그 주변에 있던 문사들이 다투어 화답하는 시를 제작함으로써,²⁶⁾ 연작형 영물시가 풍성하게 제작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철쭉·琅玕·작약·장미·동백·모란·배꽃·살구·해당화·山茶花·紫薇·玉梅(茶蘼)·원추리·접시꽃·버드나무·과초·회나무[檜]·단풍나무·국화·난초·萬年松·四季花·百日紅·三色桃·金錢花·玉簪花·拒霜花·영산홍·오동나무·치자꽃·老松·소나무·연꽃·석류꽃 등 다양한 꽃과 나무가 망라되고, 홍시·黃橙·포도 등의 과일, 怪石·假山·琉璃石·碑碣盆 등의 조경석, 錦鷄·꽃비둘기 등의 새가 등장한

23) 정민의 앞눈문에 수록된 역대 금언체 목록에서 확인한 것이다.

24) 李白이나 杜甫, 蘇軾 등 중국의 이름난 문인의 문집에도 이러한 체제로 되어 있는 작품이 많으나 이 역시 편집 과정에서 모아진 것일 뿐, 연작시로 보기는 어렵다.

25) 이규보, <次韻和崔相國說和黃郎中題朴內園家盆中六詠>(『東國李相國集』1-364).

26) 안평대군의 <비해당사십팔영>과 그에 화답한 시에 대해서는 즐고, 「세종대 집현전 문인의 문학활동」(『세종대의 문화』, 태학사, 2001)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 徐居正의 <詠物>은 43수 연작으로 <비해당사십팔영>에 등장하는 사물과 함께 학·시슴 등이 더 들어가 있다.²⁷⁾ 이와 함께 서거정은 姜希顔의 병풍 그림을 보고 쓴 시에 黃橘·밤·수박·가지·석류·홍시·참외·오이 등을 다룬 연작시를 지은 바 있는데,²⁸⁾ 그림에 붙인 것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대한 연작시로는 흔하지 않은 자료다.

조선 중기에도 정원의 문화가 더욱 발전하면서 조경용 식물을 소재로 삼은 연작형 영물시가 자주 보인다. 이응희와 비슷한 시대 인물인 李植과 黃屺 역시 정원에서 재배하는 다양한 식물에 대해 연작시를 남겼다. 특히 황호는 柑·귤·枇杷·櫻欄·蘇鐵 등과 같은 외래 식물이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변화의 양상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²⁹⁾ 조선 후기에도 이러한 연작시가 활발하게 제작되었지만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이응희 이전 새를 제외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작시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규보가 두꺼비·개구리·쥐·달팽이·개미·거미·파리·누에 등 여덟 가지 곤충을 노래한 작품이 오히려 이채로울 정도다.³⁰⁾ 비록 연작으로 묶여 있지는 않지만 金守溫의 문집에 참새·귀뚜라미·파리·철썩기·까마귀·개미·구더기 등의 시를 나란히 실어놓고 있어 본디 제작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³¹⁾ 이응희 이후에도 곤충을 소재로 한 연작시는 많지 않다. 安鼎福은 한가한 생활 중 무료하여 벌레를 관찰한 후 시를 지어 좌우명으로 대신하였는데 매미·개미·반딧불이·파리·나비·귀뚜라미·거미·잠자리·구더기·말뚝구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³²⁾

이후로도 이처럼 특정 유형의 사물을 모아 연작시를 제작한 것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이응희의 <만물편>처럼 삼라만상을 두루 포괄한 종합적인 영물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18세기 이래 李瀼의 『星湖僊說』과 成海應의 『研經齋全集』등에서 고증을 곁들여 다양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백과사전식 저술의 편찬은 계속되었으나, <만물편>과 같은 시로 제작된 백과사전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속종 때의 문인 金昌業이 자신의 집과 밭에 있는 70종의 식물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규모로 제작한 일련의 시가 주목된다. 김창업은 산살구·단풍나무·소나무·자귀나무·野椒·상수리나무·팽나무·벽오동·白榆·黃榆·북채나무·회나무·圓栢³³⁾·側柏·삼나무·밤나무·은행나무·海松·欉나무·杞나무·오동나무·닥나무·해나무·파초 등 24종의 수목, 산수유·연꽃·山茶花·千葉石榴·安石榴·나도개나리·수선화·들장미 등 8종의 꽃나무, 마늘·부추·파·紫葱·唐葱·가지·토란·시금치·상추·배추·겨자·甘露子·순무·무·생강·고추·박·미나리·오이·아욱·당아욱·순채·썩갓·동아·호박·노야기·차조기·정가·궁궁이·박하·소태나물·도라지·백도라지·여뀌 등 34종의 채소류, 地黃·山藥 등의 약초, 그밖에 갈대·창포·대나무·白竹 4종의 식물, 도합 70종의 식물을 망라하여 오언절구로 시를 지었다. 식물류만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식물류에 한해서는 <만언편>보다 훨씬 많은 종을 두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식물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잊혀진 다양한 종들이 망라되어 있어, 식물에 한정한다면 시로 제작된 가장 뛰어난 사전이라 할 만하다.

그밖에 李瀼의 제자인 愼後聃 역시 식물에 관심이 높아 채소와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百果志>와 <物産記>, 동식물의 종류와 성격을 기술한 <動食雜記> 등을 남긴 바 있거니와, <蔬食十八詠>에서 다양한 채소류를 시제에 올렸고 <種藥八詠>에서 8종의 약초를 두고 시를 지은 바 있다. 18세기 金鑪 역시 <衆

27) 서거정, <詠物四十三首>(『四佳集』10-282).

28) 서거정, <姜景愚畫屏八幅>(『사가집』10-363).

29) 이식, <一直村權氏莊詠物十二絶>(『澤堂集』88-34)과 황호, <詠物十絶>(『漫浪集』103-365).

30) 이규보, <群蟲詠>(『東國李相國集』1-320).

31) 김수온의 『拭疣集』(9-126)에 <眞雀>·<蛩>·<蠅>·<促織>·<烏>·<蟻>·<蚓> 등이 나란히 실려 있다.

32) 안경복, <詠物十絶并序>(『順菴集』229-351).

33) 정동유의 『畫永編』 등 여러 문헌에는 楡가 원백이라 하였지만 김창업은 이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果五古十韻三十首>, <衆蔬五古十韻十九首>, <衆花五律十首>, <衆器五絶四十二首> 등을 제작하여 『萬蟬窩臚藁』를 엮었는데 각기 30종의 과일, 19종의 채소, 10종의 꽃, 42종의 기물을 시로 읊조렸다.³⁴⁾ 申緯의 <貂風十二章>도 식물을 소재로 한 연작시로 주목할 만하다. 南玉이 <貂風五古>라는 제목으로 관동 지역의 풍물을 노래한 작품을 지었는데 신위는 이를 12수의 칠언절구로 바꾸어 농가로 부르게 하였다. 여기에는 메밀·귀리·콩·목면·담배·깨 등 그곳에서 재배되는 식물을 소재로 삼고 있다.³⁵⁾ 그러나 김창업 이후에도 제대로 규모를 갖춘 시로 된 식물사전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문학사의 실상을 감안할 때, 이응희의 <만물편>, <영조> 등을 비롯한 일련의 영물시의 가치는 더욱 돋보인다. 이응희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옥담유고』를 보면 18세기 이후의 것이라 생각할 정도다. 평생 수리산 아래에서 살았던 시골의 사족이지만, 오히려 향촌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신의 스타일대로 시로 형상화하였기에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응희의 시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허균, 김창업 등의 저술과 더불어 조선의 생태와 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백과사전이 새로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34) 강혜선, 「삼청동 만선와의 주인 김려」(『문헌과해석』39호, 2007년 여름). 이밖에 한시의 형식은 아니지만 김려는 <牛海異魚譜>를 저술하여 72종의 해산물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시로 제작된 것은 아니다. 강혜선의 앞글에서 이에 대해 다룬 바 있다.

35) 申緯의 <貂風十二章>(291-116). 조선 후기에 서화골동 취미가 유행하면서 주거 공간에 놓여 있는 기물을 대상으로 한 연작시의 창작이 성행하였다. 申緯의 <齋中詠物三十首>(《警修堂全藁》291-151)는 신위가 수집한 고대의 골동유물 30점을 두고 지은 연작시다.

참고문헌

- 李應禧, 『玉潭遺稿』 『玉潭私集』(필사본)
李應禧 外, 『完山世稿』(석인본)
전주이씨안양군파종사회, 『全州李氏 安陽君派世譜』(1998)
金守溫, 『拭疣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金時習, 『梅月堂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徐居正, 『四佳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徐 兢, 『高麗圖經』(민족문화추진회 D/B)
申 緯, 『警修堂全藁』(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安鼎福, 『順菴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李奎報, 『東國李相國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李 穡, 『牧隱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李晬光, 『芝峯類說』(민족문화추진회 D/B)
李 植, 『澤堂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李 瀾, 『星湖僊說』(민족문화추진회 D/B)
許 筠, 『惺所覆瓿藁』(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黃 屎, 『漫浪集』(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 강혜선, 「삼청동 만선와의 주인 김려」(『문헌과해석』39호, 2007년 여름)
안대회,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 후기 명물고증학의 전통」(『진단학보』98호, 2004)
이종묵, 「세종대 집현전 문인의 문학활동」(『세종대의 문화』, 태학사, 2001)
정 민,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효형출판, 2003)
정 민, 「<禽言體詩 연구」(『한국한문학회연구』 27집, 2001)

A Study on the Poetic Encyclopedia, *Manmulpyeon* by Yi Eung-hee

Lee, Jongmook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encyclopedic writing was introduced from China and the description of all things classified by a type was prevailing. It is notable that Yi Eung-hee, one common noble man whose anthology, *Okdamyugo* had not known to the world wrote the Poetic Encyclopedia, *Manmulpyeon*, based on this stream. *Manmulpyeon* followed the refined style as a poem, but the information about things the poem contains beats *Jibongyuseol* or *Domundaejak*, which were the similar kind of works, in quantity and quality.

Furthermore, Yi Eung-hee produced a series of poems about all 47 kinds of mountain birds and water birds at that time, which was like a bird encyclopedia. The poem describing all things including nature in a series of poems by Yi Eung-hee was one of the most conspicuous works in Korean Chinese poetry history and cultural history.

Key words : Yi Eung-hee, *Okdamyugo*, *Manmulpyeon*, Encyclopedia, poem
nature

describing